

연중 제 14주일(교황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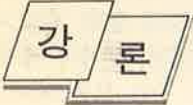
제 1독서 : 에제 2, 2-5

제 2독서 : 2고린 12, 7b-10

복 음 : 마르 6, 1-6

순정이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2고린 12, 9b)



하느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



유영도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예수께서 고향 나자렛에 가시어 복음을 선포하신다.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의 놀라운 행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예수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은 미친한 가문 출신의 이름없는 목수에 지나지 않는 예수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 보잘것 없는 목수에 불과한 예수가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나자렛 사람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이 나자렛 예수가 가문도, 학벌도, 그리고 직업도 그 무엇하나 제대로 변변치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걸려 넘어져 예수를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그토록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

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를 보고서도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하느님은 나자렛 예수 안에서 가장 미친한 인간이 되시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투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투신하신 하느님의 진면목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 나자렛 예수 안에서 가장 미친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은 가장 인간다운 하느님이요, 이러한 하느님의 참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미친한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예수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오늘의 제 2독서에서 바울로 사도 역시 “하느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으로 미친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능을 천명하고 있다. 하느님의 능력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무소유를 절감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전실존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지혜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강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이러한 사실은 기적과 특별한 표징에 집착하기 쉬운 우리의 신앙에 대해 강력히 도전하고 있다.



준법이 죄가 되는 세상

문치상(비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법이 있어도 또하나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꼭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는 것이 국민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참 희한한 일이다.

얼마 전 「지하철 준법투쟁」이라는 타이틀 속에 서울과 부산지역의 출퇴근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하철 노조들이 준법투쟁을 하면 역 정차시간이 평소의 10초 안팎에서 30초로 늘어나고 검수원의 차량정비 시간도 현행 30분에서 2~3 시간으로 길어져 지하철의 지연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규정준수운행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법을 지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당국은 직권중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준법투쟁도 위법이라고 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준법이고 위법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일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2월엔 서울 지하철 노조가 「안전수칙운행」을 한 바 있다.

이때 평소 50분이 소요된 구간이 30분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규정대로 운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 법을 어기더라도 시민불편만 해소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짧은 정비시간으로 제대로 손을 보지 못해 대형사고 발생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어디 그뿐인가?

몇달 전에 6대 도시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한 적이 있다.

「과속 안하기」「부당추월 안하기」「신호위반 안하기」「차선위반 안하기」「개문발차 안하기」「식사시간 30분 확보하기」「2 시간 운행 후 20분 휴식시간 확보하기」 등 7개항이 있다.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야 될 일이었는데 그동안 시내버스는 과속·부당추월·차선위반·개문발차 등을 다반사로 해왔다는 얘기가 아닌가?

한마디로 무법천지에서 신나게 달리고 마구 추월하면서 차선과 신호를 무시했다는 얘기였다.

준법을 무기로 투쟁을 벌이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 뿐일 게다.

그나마 준법과 질서를 미끼로 싸우는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에게 불편을 안겨준다」는 이유만으로 몹시 부정된 시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우리 뿐일 게다.

객관성을 잃어도 유만부동이지 편견에 얽매어 왜곡 속에 빠진 언론을 동조하는 국민도 우리 뿐일 게다.

허기야 오죽하면 「법은 지키는 사람만 바보」라는 소리가 보편화되어 있을까?

정말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고 지킨 사람만 손해보는 법이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대상황과 대치되거나 시대흐름에 역행되는 법은 현실에 알맞게 과감한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었으니까」라는 관습의 타파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법을 위반하더라도 벌받았으면 그만이라는 안일무사가 아직도 존재하는 한 각계각층에서 준법을 무기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준법보다는 탈법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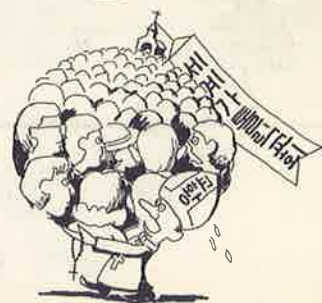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만한 탈법의 온상을 구경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정직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도대체 「난 뭣하고 살았는지, 비애스럽기도 했으니까…」

모두 내탓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억울한 일이다.

애시당초 버스나 지하철이 준법운행을 생활화했다라면 시민들도 이제는 거기에 길들여져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준법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있는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나쁜 나라에 사는 것일까요.

숲정이 산책



힘드시겠어...

주님이 계시기에

신앙과 사랑의 교육



교리교사 강동선(요셉) / 평화동 성당

새해를 맞이하여 정신이 없었던 연초(年初)에, 본당의 중고등학교 피정을 여러 동료 교리교사들과 함께 치루었던 일이 있었다. ‘피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오랫동안의 외출이랄까, 혹은 공부지옥에서의 탈출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의 들뜨고 산만해진 심정들을 덮어놓고 나무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는데 마침 아이들을 기도의 분위기로 이끌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 있었다.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대신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을 각 조별로 선출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출된 아이들의 얼굴에 친 조각이 덮혀지고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어느 순간이었다. 나는 꽤 성숙한 한 남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자신을 대신해 과감히 죽음을 선택한 바로 자기 앞에 누워있는 친구의 앞에서 몹시 슬퍼하는 장면을 보았다. 물론 그것은 나만이 목격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같이 앉아 있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여러 분임조들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었다. 이내 그 분위기는 전체로 확산되었다. 모두 함께 참회하였던 것이다. 나는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고마웠다. 비록 가장적인 일이지만 동료의 회생을 가슴아파하고 그 앞에서 속죄하는 한 작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해마다 본당에서 큰 행사를 하나씩 치를 때는 이러한 감동적이고도 대견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마 그 모습들은 많은 교리교사들에게는 가르침에 대한 큰 보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다.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말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표현이리라. 신앙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많은 면에서 기성인을 부끄럽게 한다. 화려한 성적표와 일류급 대학의 간판을 원하는 어른들은 결코 아이들보다 낮지 않다. 예수께서도 어린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일이 있다. (마르코 10, 15) 교리교육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그러한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을 게 없다. 이기심이 늘어가는 세대라고 하지만 그것도 모두가 가정과 사회의 저하된 교육 탓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인생은 타고난 성격보다도 생활하는 환경으로 뒤바뀐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피아노니, 영어니 하는 능력과 성적에 열매인 어른들이 아이들을 닮하는 게 전혀 모순이라는 말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격자를 존경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스승의 날,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베풀어 준 은혜에 고맙다는 작은 편지와 사탕을 받은 일이 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들이 성장하여 하느님 나라를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께 혼나니까,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미사도 스스럼없이 꺾하고 좋은 교육들을 외면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쓸쓸해진다. 비록 좋은 학벌을 지니지도 못하고 또, 대단한 교리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좋은 방법과 아름다운 정서를 심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허무해지고 마는 것이다. 신앙과 사랑의 교육을 별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아쉬울 뿐이다. 이제 얼마 있으면 여름 캠프니 성경학교니 특별교육이니 하는 각 본당들의 의지에 찬 청소년 교육이 시작된다. 올해도 예년처럼 가슴 뚫듯하고 사랑에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려는 어른들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가 곧 청소년 시기라고 했다.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처럼 마구 행동해 버리는 위험한 시기들을 사회와 부모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도해 주겠는가. 교회적인 관심과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교리교사들의 열성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복음화는 가정

방학이 되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가정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는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계획하고 부족했던 교과목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때쯤이면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산과 들과 바다로 나가 마음껏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간다.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면 교회는 더욱 바빠진다. 특히 초·중·고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계신 신부님이나 수녀님, 그리고 교리교사들은 모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신앙인으로 더욱 성숙해지도록 돕기 위해 각각 나름대로 힘을 기울인다. 평소에는 실시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하여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과정 안에서, 교사는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학생은 배우고 체험하면서 더욱 신앙인으로 성숙해 간다.

금년은 국제연합과 우리 교회가 모두 '가정의 해'를 지내고 있고 우리 전주교구 사목지침도 '복음화는 가정 교회로부터'이다. 이러한 흐름을 생각하여 올해 우리 교구 초·중·고 여름 교리교육 내용도 모두 가정을 주제로 한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 안에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워가면서 차츰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을 담당한다.

가정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우리에게 가정이 편안한 곳이 되지 못할 때부터 가정의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한다.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회로 번져나가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금년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교재와 중·고등부 여름 교리교육 교재내용을 세분화하여 요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금년 초등부 어린이들의 신앙학교 교리교육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로 정하였다. 교재 내용은, 가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



스도인 가정이 비신자 가정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또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알아 가정 안에서 배우고 나누는 사랑을 이웃에게도 실천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

* 교재 내용

제1과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해요 : 변화되어 가는 가정 속에서 가정의 본질을 알고, 우리 선조들의 가족제도와 현재를 비교해 가며,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위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제2과 가정은 작은 교회 : '나자렛 성가정'에서 예수님이 어린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운다.

제3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 그리스도 신자들의 가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들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알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일치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게 한다.

제4과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 가정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전파하고 실천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중·고등부 여름 교리교육

중·고등부의 여름 교리교육은 특별 교리와 캠프

서울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종합검진, 유방촬영
특수촬영, 병리검사
박민숙(아나다시아)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3

삼성전자 고산대리점

(삼성전자 완주군 서비스센터)
최정호(로베르도)
박은순(크리스티나)
고산시외버스 터미널 뒷편
판매장 251-9066
A/S센터 251-9067
호출 012-678-8252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일생수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채취하고 있는
천연 알카리수 ※생수로 인한 이익금은 장애인 복지 및 성전건립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작은 예수회
☎ (0652) 225-4678
호출기 015-682-4678

서울(가정의학과)의원

<항문외과>
치질 레이저 무통치료
치질 레이저 무통수술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교회로부터

로 나누어 실시된다. 여름 특별교리는 신앙인의 생활실천을 돕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이며, 캠프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특별교리와 캠프의 내용은 모두 '가정'을 주제로 한다.

(1) 여름 특별 교리교재 내용

제1과 그리스도인 가정: 가정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즉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비신자 가정과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생활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

제2과 교회와 가정: 교회의 사명에 참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먼저 자신의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부한다.

제3과 사회와 가정: 사회와 가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 안에서 우리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제4과 그리스도인의 사도직: 그리스도 신자들은 모두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현재 나의 생활하는 모습은 이웃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느님께서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사도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2) 여름캠프

첫째날: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라는 소주제를 통하여 나의 성격이나 이기적인 행동이 가족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가족 안에서 사랑의 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둘째날: "너를 찾노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라는 소주제를 통하여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깨닫게 한다.

셋째날: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소주제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사제직, 왕직, 예언직 소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성가정을 이루는데 가정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중요함을 깨닫고 실천하게 한다.

초·중·고생들에게 있어서 여름방학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좀 쉬면서 건강이나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도 하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은 「가정의 해」이고, 이에 발맞추어 교육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사랑을 기대한다. **교육국 제공**

요십이 (1088) 김병오



은인을 찾습니다

성당신축에 따른 성물 및 비품준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정성도 큰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전주교구 고산성당 100주년 기념사업 ☎ (0652)71-4171(FAX겸용)

용머리 바자회

<신축 기금 마련>

- 때 : 9월9일~12일
- 장소 : 용머리 성당

프란치스코 수도회 여름 성소 피정

<고등학생(야영)>

- 일시 : 7월28일~30일
- 장소 : 가수원 성인 수녀원 농장 대전 목동 수도원 집결(12시)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 참가비 : 10,000원
- 문의 : (042)255-2722

<대학생 및 일반>

- 일시 : 8월4일~7일
- 장소 : 산청 성심원 진주 진암동 성당 집결(오후2시)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 참가비 : 20,000원
- 문의 : (0591)52-4659

사무장 구할

시골 본당에 봉사해 주실 분(남녀 불문)을 초대합니다. · 본당신부 추천서, 세례증명서, 자필이력서, 호적등본 각 1통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통) 임실 성당 사목회 ☎ (0673) 43-3661

확장개원 이리 흥익 미술학원 강사모집

유아교육과 졸업자로서 1~2년이상 유경험자,오래도록 근무하실분 환영 면접 : 7월15일부터 이가우(울리아나) ☎ (0653)855-8692,51-0548

성서잡지 아곱의 우물

매일의 복음말씀을 알기 쉽게 목상하도록 돕는 성서잡지 '아곱의 우물'이 나왔습니다. · 1권 1,000원, 1년 10,000원 · 정기구독신청 ☎252-3398 성바오로 서원

특 집

계획적 시청과 「절제된 쾌락」

장낙인 교수 / 전주 우석대 신방과

지난 5월15일 제28차 홍보주일 담화문에서 교황님께서는 텔레비전을 보는 바른 습관을 자녀들에게 길러 줘야 하고 부모님들 스스로가 분별있는 텔레비전을 시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는 참으로 이상한 상자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도구가 되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상(日常)의 한부분이기를 종종 거절당하기도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세계를 접하게 하는 (부모 이외에), '세계로 향한 창(窓)'이라는 평가와 함께, '범죄학교'라는 명칭을 함께 쓰고 있다는 것도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상한 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텔레비전에 대한 평가들 중에서도 특히 텔레비전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그것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도 2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적 내용이나 선정적 내용이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며,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계를 잘못 인식시켜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의 사회적 해악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나 왜곡된 현실인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치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실험과정을 통해 제시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선뜻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

니다. 다만 두 번째의 견해가 '잘 이용하면'이란 단서를 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텔레비전과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계획되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은 채 전가족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텔레비전 시청은 가족간의 대화단절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함을 물론, 과거에 가족이(또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수행했던 가정교육 등을 통한 '사회화 기능'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넘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사이온(Shayon)의 말처럼 청소년들에게 '어른세계로 통하는 지름길'과 '어른세계로 가장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수성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가치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삼각관계, 이혼, 불륜, 사기, 범죄, 폭력 등과 같은 내용물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식 상업주의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제1의 덕목(?)이 시청을 경쟁이라는 것과 그에 따라 질적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국민학교 5학년 학생 정도의 수준에 맞게 제작된다는 주장을 고려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텔레비전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주는 메시지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으며, 영상으로 읽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데 익숙해져 있는 영상세대에 대한 올바른 텔레비전 시청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교육의 장(場)은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무제한적인 쾌락의 추구」가 아닌 「절제된 쾌락의 추구」를 위한 「계획적 시청」(적당한 시간과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른)을 그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턴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즙기, 마마께주부
최학만(바오로)
송계순(소화 데레사)
☎ (0652)254-7928~9
FAX (0652)254-2931

리틀해즈

- 원목가구 주문 제작
-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수(에밀리오)
김경숙(아기 막달레나)
효자1동 파출소앞
☎ (0652)223-6422

전주 친절 가스상사

가스렌지 판매 ·
식당 시설 검사대행 · 신속배달
박학주(베드로)
☎ (0652) 211-5889
212-1810

교 구 소 식

❖ **축! 견진**

· 때 : 7월10일(일) 오전10시30분
· 곳 : 금암 성당

❖ **교구 신학생 하기 수련회 전체모임**

· 때 : 7월10일~12일
· 곳 : 관촌 사선대

❖ **천호 피정 안내**

· 때 : 7월9일~10일
· 주제 : 나는 누구인가?
· 감사 : 박종근 신부
· 문의 : 73-6600

❖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때 : 7월4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군산 하나회 미사**

· 때 : 7월3일(일) 오후2시
· 곳 : 둔율동 성당

* 매월 첫째주일에 있음

❖ **푸른 군대**

· 때 : 7월7일(목) 오전10시
· 곳 : 덕진 성당

❖ **빈센시오회 교구 중앙 이사회**

· 때 : 7월9일(토)
· 곳 : 효자우전 성당

❖ **축! 영명**

· 3일(성토마스) 서용복, 김정원,
이제후, 이종원, 김영태 신부님
· 5일(성김대건 안드레아)
김진소 신부님

성소모임

❖ **거룩한 말씀회**

· 때 : 7월10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84-2276

❖ **성바로 말 수도회**

· 때 : 7월3일 오후2시
· 곳 : 성바로로 서원
· 문의 : (0652)252-3398

❖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상담
· 문의 : (0652)222-5269

❖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 때 : 7월10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3)842-4132

■ **권해드리는 책**

· **영성생활 - 제7호-**

2,500원/도서출판 영성생활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생활의 문제점들이 기도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평신도의 기도생활의 현주소와 함께 바람직한 기도생활을 살펴본다.

·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김수환 말씀·신치구 엮음/5,000원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이 책은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25년간 발표한 각종 기고문, 강론, 메시지, 언론과의 대화 등을 주제별로 엮은 것이다.

· **배부른 소크라테스**

전현호 지음/2,200원/미루나무 출판사
유럽 유학시절 그곳의 환경의식과 환경정책을 가까이서 보고 느낀 바 있는 전현호 신부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환경현실을 일상 체험 속에서 솔직하고 재미있게 쓴 글은 모은 책이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숲을 살립니다

아름드리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숲에 들어서면 시원한 그늘, 상쾌한 공기, 온갖 동식물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사람과 동물이 숨을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또 자동차나 공장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신 산소를 내뿜습니다. 또 새들을 비롯한 온갖 동물들의 보금자리 구실을 하고 귀중한 약초와 식물들을 자라게 해줍니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어 홍수를 막

아주고 흙이 무너지거나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숲은 사라지고 동식물도 사라지며 사람 또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숲을 살리는 일은 지구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천주교 문학 신인 문학상 작품 모집

1. 자격 : 가톨릭 교우에 한함
2. 작품 : 시, 소설, 동화, 희곡, 수필
3. 마감일자 : 1994년 10월 5일
4. 발표 : 천주교 문학 겨울호
5. 문의 : (02)886-4303, 886-4980
성황석두 루가서원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토)

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원생 모집 한겨레 웅변 속셈학원

유치부·국민학생
웅변, 속셈, 글짓기 지도
이혜숙(소피아)
금암2동 파출소 앞
☎ (0652) 77-7114

전주보육사

여름성경·산간학교 T셔츠
가방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이승호(다마스)
금암 분수대 앞
☎ (0652) 72-8818
(0654) 43-1423

현대피부미용전문학원

미용과·연구반
피부관리·메이크업
분장(T.V, 연극)
유학, 해외연수
김금순(데레사)
☎ 86-2211, 254-300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부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14주일(교황주일): 2차 헌금 있음.
- ◎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
- 1. 어머니 인도에 열심을 보입니다: 오늘부터 교리 시작
 - 수요일-저녁미사 후
 - 일요일-장엄미사 후
 - 장소-지하 교리실
- 2.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7일 저녁미사 후
- 3. 첫영성체 어린이 세례식: 9일 후 3시
첫 고백: 9일 후 4시30분
첫영성체: 10일 장엄미사
- 4. 감사헌금: 한석규(요한)-삼만원, 감사합니다.
- 5. 모임: ①울뜨레아(오늘, 장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5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희장 모임(7일, 전 10시30분)
④장우회(10일, 장엄미사 후)
- 6. 전전화비 내지 않은 분은 사부실에 내주세요.
- 7. 금주 청소: 인후6, 7만
차주 청소: 인후8, 9만

☐ 지난해 봉헌금: 1,131,970원 ☐ 교무금: 1,78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부실 86-4929 주임신부 이증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14주일! (교황주일) 2차 헌금 있음.
- ◎ 축! 영명: 7월3일(오늘) 본당신부님(이증원, 토마스)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에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축하식: 공식미사 후
- 1. 꾸리아: 7월3일(오늘) 오후 2시
- 2. 청년회: 7월3일(오늘) 저녁미사 후
- 3. 사목회: 7월5일(화) 저녁 9시
- 4. 자모회: 7월6일(수) 오전 10시30분
- 5. 중·고 여름캠프: ①매-7월24(일)~7월26일(화)
②꽃-고당 수련원
③대상-중·고등부 학생
④참가비-8천원
⑤신청-교리교사하나 중·고학생회(7월10일까지)
- 6.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익명1명 20만원, 이강순(마리아) 10만원, 박종철(바오로), 박양옥(아기안나) 2명 각 5만원, 익명2명 각 5만원, 박춘애(마리아) 3만원, 계53만원, 6월 26일 현재 2백8십 5세내 신입함.
※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나 헌금 신입하신 분 납부바라며, 미신입하신 분 신입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984,850원 ☐ 교무금: 1,877,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부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2차 헌금 있음)
- 1.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 3. 구역분과회: 5일(화) 오전 10시
- 4. 울뜨레아: 5일(화) 저녁미사 후
- 5. 자모회: 7일(목) 오전 10시
- 6. 성체강복: 7일(목) 저녁미사 후
- 7. 여성분과회: 9일(토) 오전 10시
- 8. 고3 모임: 9일(토) 저녁미사 후
- 9. 요셉회: 10일(주일) 공식미사 후
- 10. 꾸리아: 10일(주일) 오후 2시
- 11. 청년회: 10일(주일) 저녁미사 후
- 12. 중·고학생 여름캠프 신청바랍니다.
일시-94. 7. 22~25(3박4일) 회비-7,000원
신청 접수-중·고 교리교사회, 마감-7월10일까지
- 13. 성당 청소: 9일(토) 바다의 별Pr, 사도의 모후Pr
- 14.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정승관 부부
봉헌-안철조 가족
- 15.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김성원 가족
- 16. 감사헌금: 100,000원

☐ 지난해 봉헌금: 640,590원 ☐ 교무금: 1,766,6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부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연중 제14주일-교황
- 1. 금주: ①교황주일 2차 헌금
②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③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④제숙굴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⑤요셉회(후 6시) ⑥청년회(후 8시)
- 2. 빼에따회: 6일(수) 오전 11시
- 3. 성체강복 및 조배: 7일(목) 오전 10시
- 4. 성모성심회: 7일(목) 오후 3시
- 5. 성심유치원 방학: 8일
- 6. 병자 봉성체: 8일 오후 2시
- 7. 유아세례: 9일(토) 오후 3시~8일까지 접수마감
- 8.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9. 감사합니다: 성당 앰프 헌금-5만원(조순자, 아네스) 100만원(익명) 20만원(익명) 감사헌금-20만원(익명)
- 10. 성지회 임원개편:
회장-국성호(스테파노) 부회장-이대식(다니엘)
총부-서재정(마르차이노)
김수웅(베드로) 전임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난해 봉헌금: 1,848,44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부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오늘은 교황주일: 모든 미사중 2차헌금
-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 회비 납부의 날
- 2.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자모회-9일(토) 저녁
③안나회-다음주일
- 3. 성시간 및 성체강복: 7일(목) 저녁
- 4. 제대꽃 봉헌: 김봉길(우까)-3만원.
- 5. 금주 청소: 순교자의 모후Pr
- 6. 차주 청소: 모든 성인의 모후Pr
- 7.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남현준 ②송정자
봉헌-이수복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정광설 ②오귀남
봉헌-최경림씨 부부
-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
<물고기>
로마 박해시대에 신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면 암호인데 그리스도를 가르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회람어의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물고기(ΙΧΘΥΣ)라는 회람어가 된다.

☐ 지난해 봉헌금: 442,200원
☐ 본당발전을 위한 헌금: 152,6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부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장삼근

- ◎ "우리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어여빠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 ◎ 오늘은 교황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1. 성시간 성체강복: 7일 저녁 7시30분
- 2. 전례 교육의 날: 6일 오전 11시 어머니미사와 오후 7시30분 아버지미사 때 교육이 있으니 모두 참여하시다.
- 3. 구역 반희장 연수회: 5일 전 10시30분 기도회 현황 보고
- 4. 청소년 여름 신앙학교 운영 협조: 각 반별로 1만원 이상 10일까지 납부바라며 개인별로 협조하실 분께서도 사부실에 접수바랍니다. 모두 은인이 되어 주시길...
- 5. 심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 한번씩 참여해 봅시다.
- 6. 회의: 꾸리아-오늘 오후 2시30분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부녀회-6일 어머니미사 후
계대회-8일 후 3시
성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7. 전임 교우 환영합니다. 세대주-유현순(굴라라) 88-9457
홍원식(젬마) 85-5626 김금선(젬마) 85-6064
윤금철(미카엘) 87-6728 오승환(아오스팅) 87-6160
김길환(마태오) 86-4854
- 8. 축! 하수정 작품전: 7월1일~7일까지 많은 성원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1,199,560원 ☐ 교무금: 1,735,000원